





WHO 1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소형기구 공유주택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의 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간·물리적, 시각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기획해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경험적 요소의 연출과 매끄러운 동선으로 공간을 구획해야 한다.
5학년 졸업 프로젝트 _ 2021.03.02 - 2021.09.14

WHEN 2

어린이가 탈 없이 성장하는 아지트 같은 학교

골목에서 뛰어놀아 본 적 없는 현대 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기존 학교와 달리 운동장까지 갈 필요 없이 교실 문만 열면 자신들의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복도 공용공간을 크게 만들어 공간의 크기가 제곱이 되어짐을 동선으로 느끼고 공유의 가치도 제곱이 되는 아지트 같은 초등학교를 만들고자 하였다.
3학년 학교 프로젝트 _ 2019.03.06 - 2019.06.18

HOW 3

자생적 마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공유활동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생적으로 마을재생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지속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장기적 관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내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4학년 도시 프로젝트 _ 2020.03.24 - 2020.06.30

WHO 1

누구를 위한 설계를 할 것인가

PROLOGUE

현대사회는 도시화·산업화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공간상의 경계가 모호해져 공간의 성격이 흐릿해졌다. 이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과 타인과 공유하는 공적 영역도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약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도심은 새로운 녹지 조성이 어려우며,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주변 상권으로 되려 활력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삶에 고립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82-28번지 일대
지역 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아파트
대지면적 : 5395.76㎡
건축면적 : 2661㎡
건폐율 : 49.32% [50%이하]
연면적 : 16,087.55㎡
용적률 : 298.15% [100%이상 30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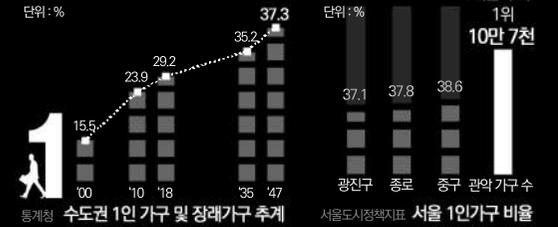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영화관]
건물 규모 : 지하 3층, 지상 14층, 최고 77m
외부 마감 : 스티코플렉스, 세라믹사이딩, 파벽돌, 유글라스
주요 설비 : 개별난방시스템, 스프링클러, 태양광 패널 설치
조경 면적 : 910.56㎡ [대지면적의 15% : 809.36㎡ 이상]
공개공지 : 408.69㎡ [대지면적의 07% : 377.70㎡ 이상]
주차 대수 : 235대 [장애인주차 24대, 확장형주차 18대 포함]
승강기 : 1층 기준 6EA / 기준층 기준 4EA [장애인겸용]



I 문화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유도하는 '공적공간'을 담다.
 공적공간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공간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녹지 축을 대지 속 OPEN SPACE에 유입시켜 광장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탄력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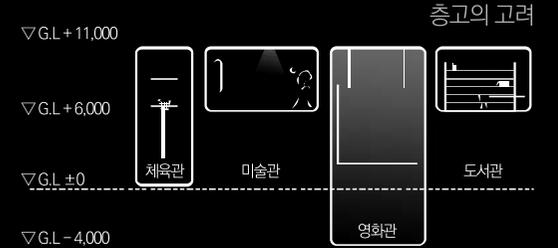
1 FLOOR SITE PLAN

인구·가구구조의 소형화



인구 수는 감소, 가구 수는 늘어나면서 소형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다.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형태가 난립하지만 주거공급은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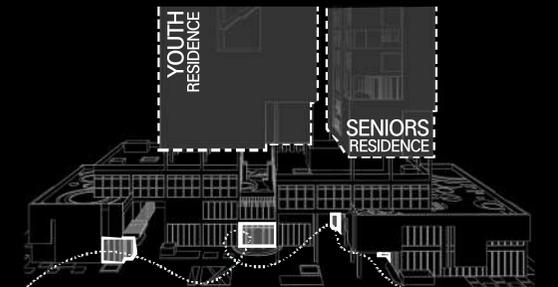
공적공간의 심화



체육관과 영화관은 다양한 활동, 장비로 인해 2층까지의 높은 층고가 필요하며, 미술관과 도서관은 2층에서 공간의 깊이를 더 깊이 보여준다.

도시 속 개방된 공간, '광장'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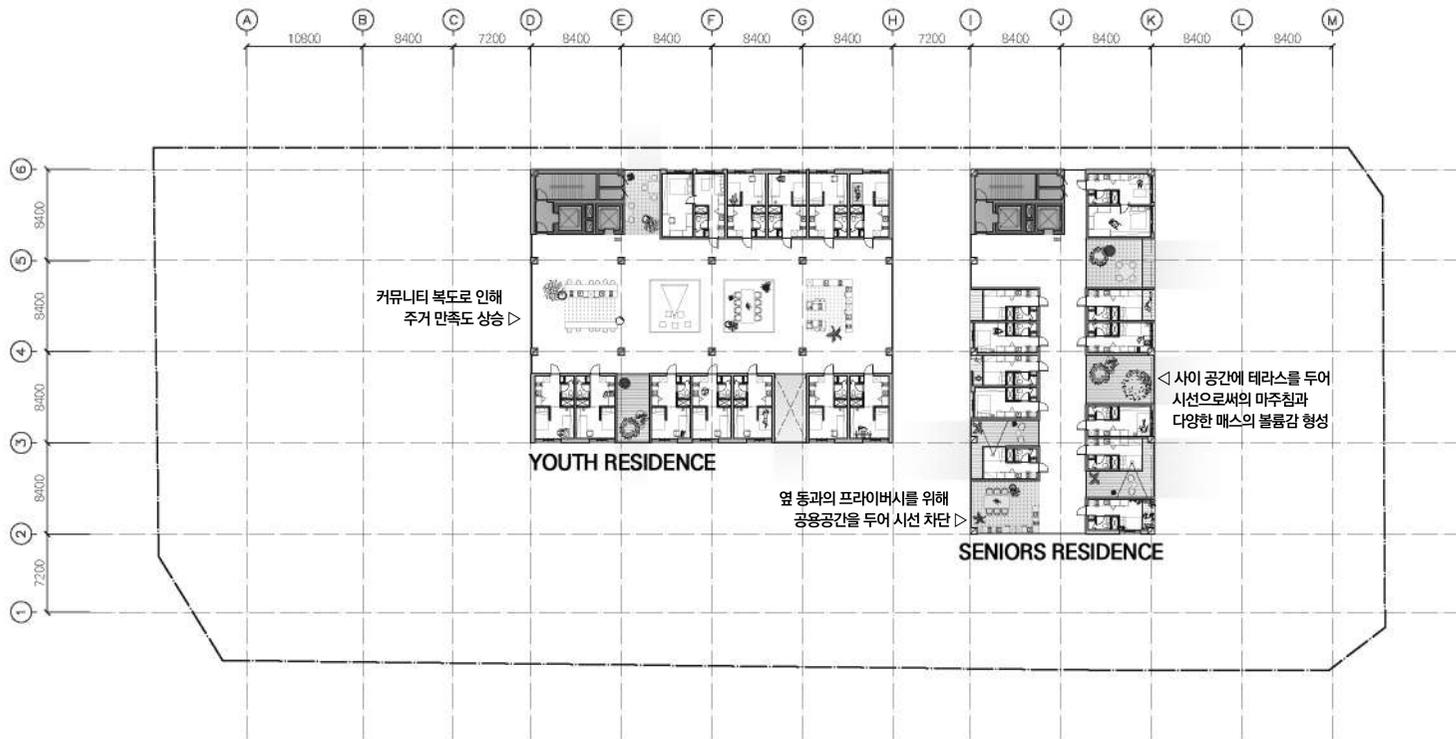
광장을 통해 인구성을 느끼게 하고 접근을 유도한다.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보다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게 계획한다.



관악구는 문화시설, 보건시설, 복지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중 문화시설을 1층에 두어 외부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였다. 특히 관악구는 문화시설이 3개소가 있으나 시계 지역중심으로 4개소 더 추가확보가 필요함

1 FLOOR PLAN
 SCALE : 1/700 [A4]

II 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거주지, '사적공간'을 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보유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



UPPER FLOOR PLAN
 SCALE : 1/700 [A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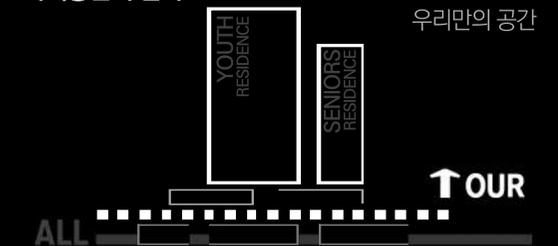
UPPER FLOOR PRIVATE SPACE PLAN

주거공간의 이용률 상승



멈추지 않는 일상 속, 주거공간의 이용률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한정적인 집터는 좁아졌다. 잠깐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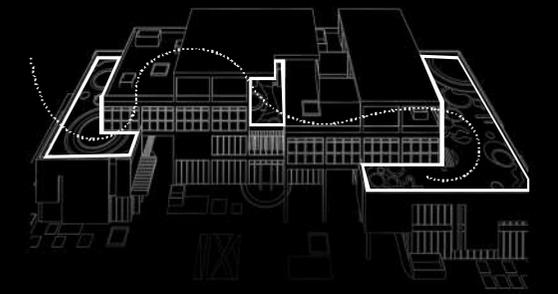
사적공간의 심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흩어져 사는 인구와 도시 기능을 주요 거점에 밀집시키며, 공유를 통한 다양한 활동의 소통공간을 조성한다.

배풀어 놓은 큰 정원, '공원'

여러 사람들의 보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공간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공간이자 같이 공유가 가능하지만 상부에 위치하여 또 따로 있는 작은 공원의 느낌을 준다.



두 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준사적공간'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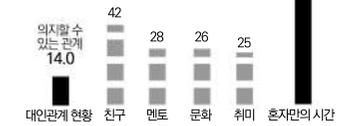
로비 역할의 공간은 작아지고 또 흩어진 공적공간은 각 층과 사적공간에 인접하여 공간의 밀도를 줄이게 한다.



CROSS SECTION PLAN

내부의 외부화, '복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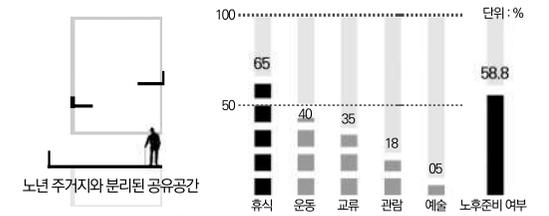


청년 주거지 사이의 공유공간

청년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을 추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형성 장소를 추구한다. 복도는 통로 역할을 넘어 다양한 활동공간이 된다.

실외의 내부화, '테라스'

단위: %



노인은 생활중심의 밀착형관계를 추구하면서도 개인차용적 여가를 선호한다. 테라스는 쾌적한 환경 도모, 시선의 마주침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언제 이용을 하는 공간인가

골목에서 뛰어놀아 본 적 없는 현대 아이들을 위해 기존 학교와 달리 운동장까지 갈 필요 없이 교실 문만 열면 자신들의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복도 공용공간을 크게 만들어 공간의 크기가 제곱이 됨을 동선으로 느끼고 공유의 가치도 제곱이 되는 아이트 같은 초등학교를 만들고자 했다.

넓은 복도 속 4개의 아트리움

큰 아트리움을 계획하여 교실에서 복도를 나왔을 때, 더욱 넓어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아트리움을 둘러싼 공간은 아트리움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빛에 의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향을 고려한 층고 계획

층고가 높은 고학년동은 북측, 비교적 낮은 유치원동을 남측에 두고 행정동을 동측, 높은 강당은 서측에 배치하여 낮에 활동하는 학교에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PROLOGUE

대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708, 709, 710
 지역 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대지 면적 : 14068.1㎡
 건축 면적 : 6,021.1㎡
 건 폐 율 : 42.8% [60% 이하]
 연 면 적 : 19414㎡
 용 적 률 : 138% [250% 이하]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물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최고 20m
 외부 마감 : 백색콘크리트, 세라믹사이딩
 주요 설비 : 개별난방시스템, 스프링클러
 조경 면적 : 5447㎡ [운동장 제외]
 학 급 수 : 초등학교 30학급, 유치원 5-7세 3학급
 주차 대수 : 82 대 : 장애인주차 8대 포함 [250㎡ 당 1대 : 62대]
 승 강 기 : 1층 기준 4EA [장애인 전용]

초등학교는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처음 사회를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을 겪게 된다. 사람은 나만의 공간, 어떤 경계가 지어진 공간에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는데 외부가 아무리 수려해도 공간의 경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그곳에서의 놀이, 활동들이 발생한다.

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인 '아이트'를 컨셉으로 잡았다. 그 아이트를 층별로 각 학년마다의 테마를 잡아 복도를 통하여 만남과 소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IV 공간을 사용하는 이들의 나이와 사용 시간대를 고려하다.

자연스러운 마주침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장소성을 지닌 공간은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가져다주어 이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1 FLOOR PROGRAM

최고학년인 6학년의 공간으로 내외부가 연계된 자연의 감성, 창의적인 예술 공간을 표현하려 하였다. 교무실도 배치하여 선생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외부가 연결된 예술 공간

발달과정에 적합한 학습 공간의 구성은 고학년에겐 중요한 요소이다. 5학년은 직접 다루고 보는 자료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미디어센터의 배치된 책, 컴퓨터로 실을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술실 및 과학실을 통하여 다루고 만지는 공간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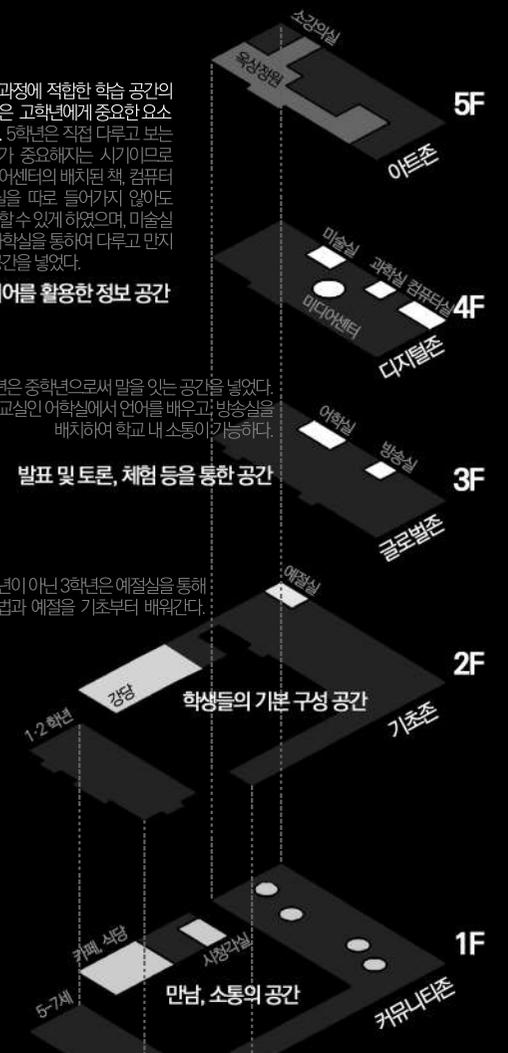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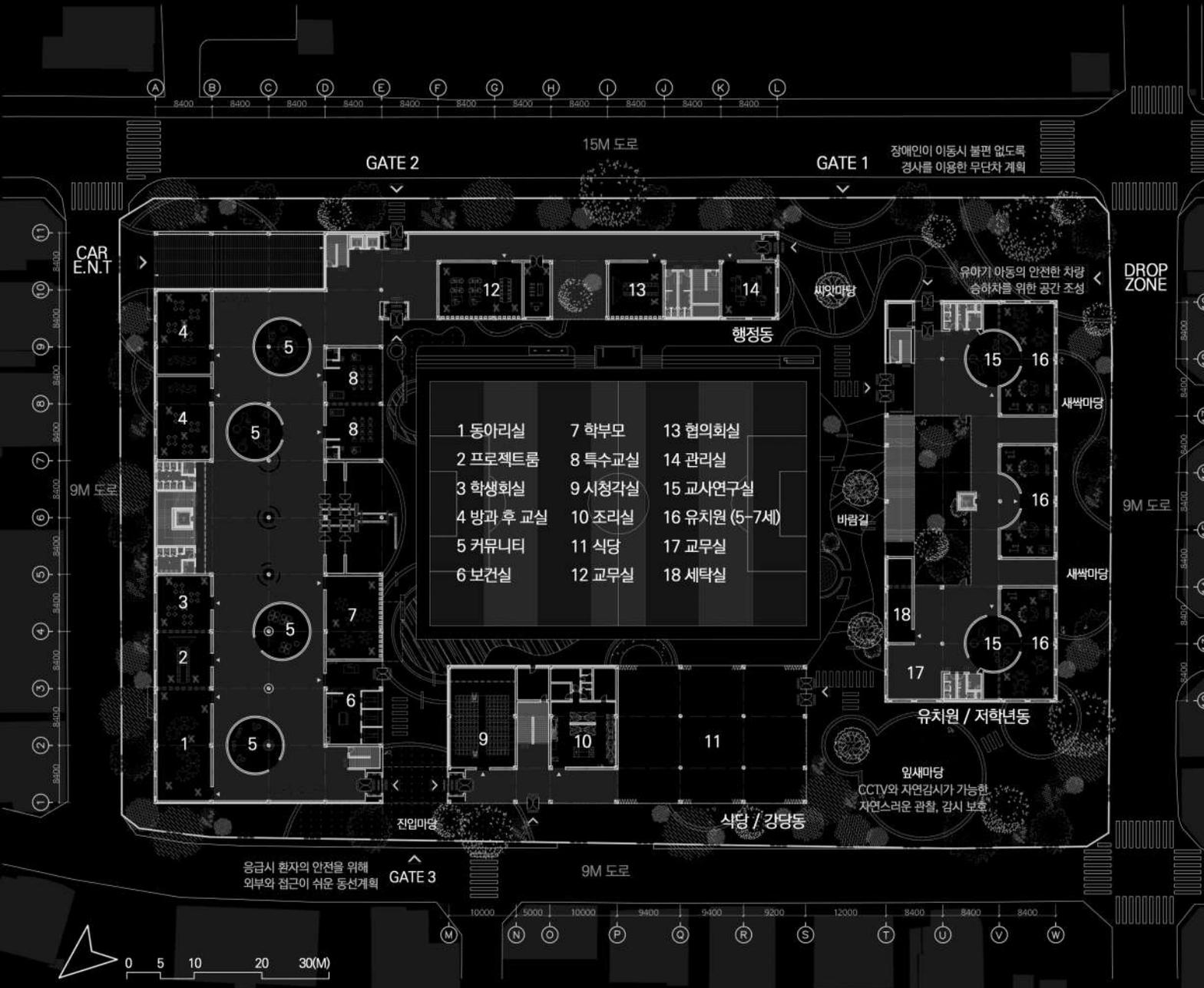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공간

4학년은 중학년으로서 말을 잇는 공간을 넣었다. 특별교실인 어학실에서 언어를 배우고, 방송실을 배치하여 학교 내 소통이 가능하다.

발표 및 토론, 체험 등을 통한 공간

저학년이 아닌 3학년은 예절실을 통해 인사법과 예절을 기초부터 배워간다.

주말에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소통한다.



3 How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PROLOGUE



대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 일대
 지역 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상지 내 여러 용도 혼합
 건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아파트
 대지 면적: 111108 m² (약 33670 평)
 대지 인구: 78915명; 주변 광역행정화 및 정주여건 악화로 유출 가속화
 문 제 점: 지리: 가운데 '봉대미산'으로 인하여 두개의 시내로 나뉘는 산으로 둘러싸여 낮은 지대를 형성, 접근성 결여
 인구: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및 일자리 부족
 환경: 주거 환경 열악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93.2%]
 문화: 복지 환경 열악 [주민 간 소통 결여, 휴게공간 전무]

대상지 내 문제점이 다분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성격을 가진 공유공간을 곳곳에 배치한다. 이 공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낮은 부담감과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자발적인 협동 유발과 함께 재능 나눔을 통한 내부 순환 구조 구축을 실현하고자 한다.

V 과거를 기억하고 개인의 삶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잡다.
 대상지와 같은 저성장 시대의 도시에서는 도시를 지워버리는 개발 방식보다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다시 쓰는 재생의 방법의 해결방안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PROBLEM

읍·면별 고령자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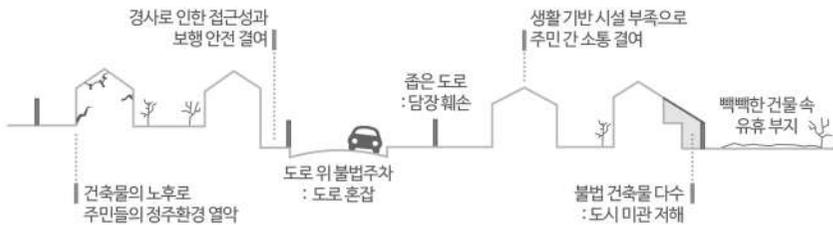


예산에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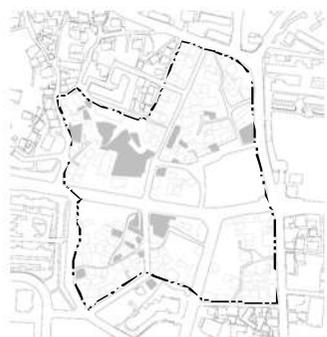


지역 노인의 경우, 지역 애착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자발적 공동체 형성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여 노인의 지역 내 참여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경험, 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지역내에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의 유출로 예산읍의 고령자 인구 급증,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일자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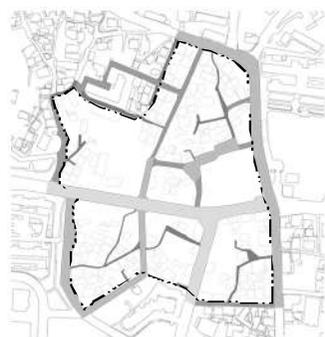
대지 이용 현황



노후 현황



도로 현황



대지 곳곳에 위치한 맹자와 텃밭은 제대로 된 관리와 적절한 활용을 하지 못하는 현황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예산읍 60.09%, 대지 내 93.2%로 전체적인 주거 환경 열악

대지 내 도로 폭이 좁고, 상태가 좋지 않으며 곳곳에 급경사 지역으로 인해 주민 안전 우려

지역 도시재생을 통하여 주민 간 소통이 가능하고 담장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도시 미관 회복 또한, 뽕뽕한 건물들 속 다수의 유희부지를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

1 교육 PROGRAM
 지역 노인파 다른 계층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공유 공간 조성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주거의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노인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단순한 생계를 위한 거주공간을 넘어 삶의 패턴 속에 사회적 접촉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PROGRAM 건강 2
 지역 노인의 신체 활동량 증가 및 근력향상 위해 오픈 스페이스 조성
 기존의 노인을 위한 공간은 그들을 케어하는 경로당, 요양병원 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점차 지역 노인들의 인식과 욕구가 변화하면서 공동체가 기반된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 노인의 경우 가치 있는 삶의 재발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토대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원하기도 한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만 조성하여서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있어 사회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지역 노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지역 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성화

PROGRAM 여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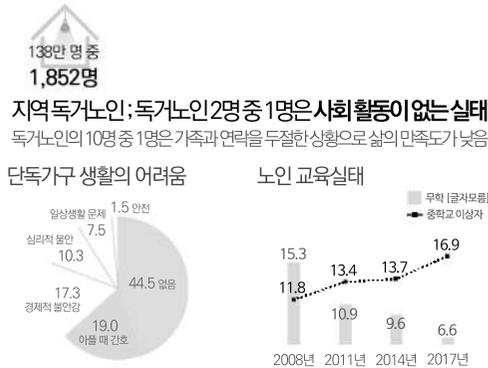
4 상업 PROGRAM
 지역 노인의 지역 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선순환을 유도
 지역 노인의 경우 경제적 활동 중단한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퇴직한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 노인을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정책은 이들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을 단순한 소득활동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V 무리한 신축을 지양한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의 한 축은 주민 참여형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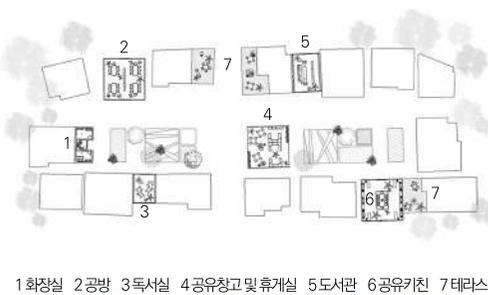
PROGRAM

1 일상 공유 속 교육 연결의 제안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주거의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거주하던 지역에 머물면서 생계를 위한 거주 공간을 넘어 생활패턴 속에서 사회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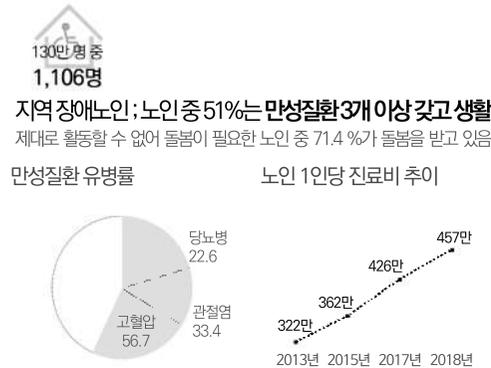
노인마다 다른 계층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공유공간 조성



노인의 바람을 고려해 주거공간 속 공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스토리 및 자식을 공유하는 소통공간을 조성하여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개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임

2 일상 공유 속 생태 연결의 제안

기존의 노인을 위한 공간은 그들을 경로당, 복지관, 요양병원 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지역 노인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실천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노인의 신체활동량 증가 및 근력향상 위해 오픈스페이스 조성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금오산의 녹지 축을 연결하여 재활기구, 트랙, 근력강화 및 균형 감각 운동기구, 지압 기능이 있는 인선 손잡이 등 노인의 신체활동을 고려한 시설을 배치함

3 일상 공유 속 문화 연결의 제안

노인의 가치 있는 삶의 재발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토대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인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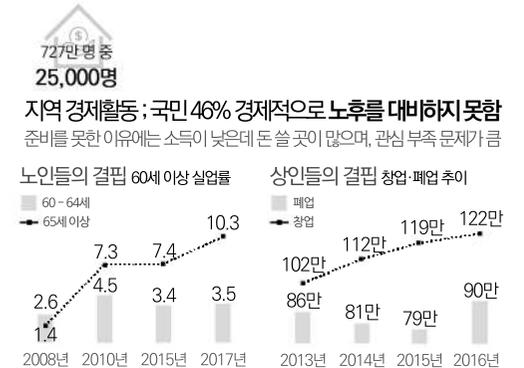
노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지역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성화



주거공간 속 공유를 통해 개인공간에서 나와 소통의 공간을 넣어 서로 미추지면서 활동이 이루어지며 심신의 건강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내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되도록 함

4 일상 공유 속 경제 연결의 제안

노인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중단한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퇴직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은 이들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소득활동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노인의 지역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선순환을 유도



기존 지역의 상업을 살리고 중, 노년층이 많은 점과 주변을 고려하여 단순 매매공간을 넘어 공동체형성을 통한 장부 공유를 통해 다양한 활동과 소통 공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 도모